

프랑스어권 교과, 비교과과정 운영 현황

-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 운영 사례*

김태훈**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왜 프랑스어권인가? : 프랑스어권 지역학교육 연구 현황
- III.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
 1. 교과과정 운영과 개편
 2. 비교과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 IV.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의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 힘입어 2017년에 개설된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은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지역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3개의 프랑스어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교과과정의 운영만으로는 학생들의 프랑스어 실력과 지역학에 대한 이해 능력을 동시에 증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프랑스어 능력과 진로와 취업 능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와 국외 인턴쉽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해외에서의 취업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 10월 13일 <한국 프랑스 어문교육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그러나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 끝나면서 이후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프랑스어 실력을 향상하고 해외 인턴쉽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해외 취업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 프랑스어권,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지역학, 해외 인턴쉽

I. 들어가는 말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이런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제출되어왔다. 정부와 교육부가 주도한 이러한 대처 방안 중 가장 최근의 것은 ‘학부교육 선진화사업(ACE 사업)’, ‘대학 특성화사업(CK)’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이다. 2014년부터 시작되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 인문학에 한정된 사업은 아니었으나 ‘국가 지원 유형’이라는 이름으로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했다. 특히 인문과 국제화 분야가 지원 대상이 됨으로써 이 사업을 지원받은 인문과 외국어 관련 학과들의 경우 이 사업이 요구하는 교과과정의 개편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다. 프랑스 어문학 분야의 경우 아주대학교는 학부교육 선진화사업으로 시작하여 대학 특성화사업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대표적인 모범 사례¹⁾를 남기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특성화사업과는 달리

1) 이에 대해서는 김용현·손정훈, 『프랑스어권 교육 과정에 대한 고찰과 전망 -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트랙』, 『프랑스어문 교육』 49,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5를 참조.

그 지원 대상을 분명하게 인문학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총 19개 대학이 지원을 받은 이 사업은 5개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글로벌 지역학모델’이 대부분의 불문학과들이 선택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세계 각 지역에 특화된 지역학 위주로 학과구조 및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언어·역사·문화에 정통한 지역전문가 육성”을 모델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운영방식으로는 “세계 각 지역의 언어를 기반으로 문학, 역사, 철학, 지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학과를 개편함으로써 언어권별 지역학 교육 및 연구거점 구축²⁾”을 제안하고 있다.

이 사업이 강제하는 요구 사항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들의 상황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세계 각 지역의 언어를 기반으로 문학, 역사, 철학, 지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학과를 개편”할 것, 기존 학과를 유지할 경우에는 “교과목을 1/3 이상 개설 또는 개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과구조의 변화나 교육과정의 개편에 있어 대학들은 동일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대학원 진학 학생 학업지원금처럼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 개발·운영비가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과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원대상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공개강좌 제작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대학이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지역학 공개강좌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표면상의 유사성과는 달리 대학들의 실제 운영 상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수용하여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학과 명칭까지 바꾸면서 이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과 구조와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시도를 하는 대학까지 운영 방식의 차이는 매우 크다.

경북대학교의 경우는 4개 제2외국어 학과들(불문, 독문, 일문, 노문)을 묶어 ‘글로벌 지역학 트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트랙을 위해 개발된 과

2) 이에 대해서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홈페이지(<http://core-portal.org>) 참조.

목들 중 프랑스어권 과목은 단 한 과목일 뿐이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의 교과목 중 일부를 지역학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프랑스어권 강의들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는 불어불문학 전공 내에 ‘프랑스지역학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프랑스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거의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³⁾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례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프랑스어권 지역학을 교과과정에 도입한 경우로, 전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학과 명칭을 ‘프랑스·아프리카 학과’로 변경하였으며 전남대학교의 경우 불어불문학 전공과 불어교수법 전공이라는 기존의 두 개의 전공 중 불어교수법 전공을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으로 변경하였다. 학과나 전공 명칭을 바꾼 만큼 새로 개설되거나 개편된 교과목의 폭도 크다.⁴⁾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중 전남대학교를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 상에서 프랑스어권 지역학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교과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그 결과로 프랑스어권 지역학

3) 이에 대해서는 김태훈, 「한국에서의 프랑스어권 연구와 교육 현황」,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 1,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 2018, 11~13쪽 참조. 참고로 이화여자대학교 프랑스지역학 트랙의 교과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계	학년-학기	교과목
기초	1-1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 I
	1-2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II
	2-1	프랑스지역학입문
	2-2	현대프랑스예술과 사회, 유럽학 입문
심화	3-1	소설로 보는 프랑스 역사, 유럽정치(정치외교학과 개설교과)
	3-2	프랑스 대중문화, 영화로 보는 프랑스사회와 문화 서양현대사의 흐름과 세계(사학과 개설교과)
확장	4-1	국제사회속의 프랑스, 프랑스 시사토픽, 프랑스 사상의 흐름
	4-2	프랑스 정치경제읽기, 프랑스어권지역의 이해

4) 전북대학교는 학과 명칭을 프랑스·아프리카 학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의 개편 역시 매우 적극적이어서, 교과과정의 1/4 정도를 프랑스어권 교과목으로 개편하였다.

교과과정의 적절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은 전남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실상 지역학 전문가 육성의 특성상 교육과정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남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통해 그 운영 방향 역시 찾아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II. 왜 프랑스어권인가? : 프랑스어권 지역학교육 연구 현황

국내에서 프랑스어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그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한양환은 그의 논문 「불어권 지역연구와 불어교육의 활성화」에서 불어권 대학 연합기구(AUPELF UREF)의 총장인 미셸 기유(Michel Guillou)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문학사, 비평, 통·번역 또는 불어교수법 교수들이 자신들의 전공에 칩거. 안주하여 소속학과를 ‘양어장’처럼 폐쇄된 공간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전세계의 불어권지역을 새로운 학문의 장으로 하여 연구하고 교육시킴으로써, 침체된 불어 관련 학과를 소위 ‘잘 나가는’ 인기학과로 전환시키는 ‘작은 혁명’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취업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문화적 요소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어권지역 전반의 실용적 측면을 고려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혁명’이 완수된 예를 그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면서 “불어권연구소의 창설” 또는 “학과부설 학제간 연구소 운영을 통한 교과과정의 재편”을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⁵⁾

5) 한양환, 「불어권 지역연구와 불어교육의 활성화」, 『한국프랑스학논집』, 29, 한국프랑스학회, 2010. 64쪽.

미셸 기유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한양환의 문제의식 역시 분명하게 담겨 있다. 즉 기존의 불어불문학과들이 학문의 대상을 불어권 지역으로 확장하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실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불어권을 대상으로 하는 학제간 연구소를 창설하고 교과 과정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땡따먹기’가 곧 학과생존의 자구책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 「불어권 지역연구」의 우리도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할 때이다.”⁶⁾라는 한양환의 발언은 불어불문학과가 당시 겪고 있던 위기 앞에서 가능했던 솔직한 심정의 토로라고 할 수 있다.

실상 한양환의 논문 이후에 발표된 프랑국어권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들 역시 그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해수⁷⁾, 정남모⁸⁾, 김정석⁹⁾, 김용현과 손정훈¹⁰⁾ 등 프랑스 또는 프랑국어권 지역학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글들은 모두 그 필요성을 인문학 또는 제2외국어 학과들이 겪고 있는 위기에서 찾고 있다. 제2외국어 학과들, 특히 불어불문학과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선택한 첫 번째 해결 방안이 문화로의 확장이었다면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지역학으로의 확장이었다. 그리고 프랑스를 대상으로 하던 지역학이 프랑국어권으로 그 영역을 확장한 것은 이러한 경향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기 극복이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각 연구자들이 제시한 방향이나 해결책들은 더 발전되고 구체화되었다. 2003년 정해수는 외국어문교육에 있어서 ‘문화가 목적이 아닌 언어의 부수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당지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

6) 위의 글, 65쪽.

7) 정해수, 「국내대학에서의 문화관련강좌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프랑스 문화 및 지역연구 강의를 위한 제언」, 『프랑스학연구』 25, 한국프랑스학회, 2003.

8) 정남모, 「불어불문학과 발전방안으로 프랑국어권교육의 도입 가능성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72, 한국불어불문학회, 2007.

정남모, 「프랑국어권 교육을 통한 프랑스학과의 특성화, 다양화, 전문화에 대한 소고」, 『한국프랑스학논집』 63, 한국프랑스학회, 2008.

9) 김정석, 「지역학과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문교육』 28,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8.

김정석, 「프랑스(어) 관련학과의 지역학 교육 표준화 모형」, 『프랑스학연구』 48, 프랑스학회, 2009.

10) 김용현·손정훈, 「프랑국어권 교육 과정에 대한 고찰과 전망 - 프랑국어권 아프리카 트랙」, 『프랑스어문 교육』 49,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5.

하고자 하는 외국어문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문화를 통해 언어교육을 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국이나 유럽의 각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어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 문화 및 지역에 대한 연구¹¹⁾'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국어문교육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후속 연구를 통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의 해외 프랑스 관련 학과의 강좌를 조사해 프랑스 문화, 지역학 강의 현황을 제시¹²⁾한 바 있다. 그러나 정해수의 연구는 여전히 대상 지역이 프랑스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2008년 정남모는 프랑스라는 지역에서 벗어나 프랑스어권으로 프랑스 학과들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양환의 8년 전 주장과 다를 바 없으나 한양환이 위기 극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프랑스어권으로의 확장을 주장했다면 정남모는 훨씬 더 적극적인 논거를 제시한다. '기존의 교육은 어문학을 중심에 두고 학술연구자를 배출하기 위한 고전적이고 "정형적" 교육이었다면, 프랑스어권교육은 사회에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적이고 "비정형적" 교육의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어권 교육은 단순히 위기 탈출을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종합적·총체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글로벌 인재를 육성¹³⁾'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프랑스어권 교육의 필요성과 해외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는 김경석에 이르면 지역학교육을 위한 모형의 제시로 구체화된다. 김경석은 '소극적 문화교육 모형'과 '적극적 지역학교육 모형'을 제시한 후, '현 프랑스 관련 학과 교수들만으로 지역학의 심화 교과목에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어렵

11) 정해수, 앞의 글, 507쪽.

12) 정해수·장연옥, 「국내대학의 프랑스문화·지역연구 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외국대학의 프랑스관련학과 강좌 조사 I -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42, 한국프랑스학회, 2003과 「국내대학의 프랑스문화·지역연구 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외국대학의 프랑스관련학과 강좌 조사 II :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대학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15,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3 참조.

13) 정남모, 앞의 글, 375쪽.

다¹⁴⁾는 문제점을 적극적 지역학교육 모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교육 과정 표준화 모형’이라는 한국 상황에 적용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언어능력 공통교과를 이수한 후, ‘문학, 어학트랙’, ‘지역학 혹은 실무트랙’, ‘교직트랙’을 선택하게 하여 ‘수요자 중심교육’ 또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¹⁵⁾’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김경석까지의 연구가 일종의 가능성에 대한 제안이었다면 김용현, 손정훈의 연구(2015)는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인만큼 확연한 변별성을 지닌다. 이 지역의 교육 과정 개월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된 후 10여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결실을 만들어 낸 최초의 사례 연구인 것이다. 학부교육선진화사업(ACE사업)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아주대학교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트랙>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이 트랙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과 평가, 그 개선 방안까지 이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김용현, 손정훈 두 연구자는 아주대학교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트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지역학 교육 과정은 한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전문 분야를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필연적으로 가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설계한 ‘트랙’이라는 형태의 교육 과정은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학 교육 과정 개선을 시도해보기 위해서는 매우 적절한 틀이었다고 생각된다. 전통적인 불어불문학과 교육 과정 자체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두고 고민하는 대신, 과도기 형태의 유연한 교육 과정을 통해 학과의 방향성 전환을 실험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었다.¹⁶⁾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트랙>은 ‘정치외교’, ‘경제’, ‘국제통상’과 ‘불어불문’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트랙 이수를 위해 수강해야 할 교과목은 7개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 프랑스어권과 관련된 교과목은

14) 김경석, 앞의 글, 329쪽.

15) 김경석, 위의 글, 331쪽.

16) 김용현·손정훈, 앞의 글, 29쪽.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사회와 문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정치와 경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세미나’의 세 과목에 그치고 있어 지역 전문가 양성에 충분히 보이지는 않는다.

III.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은 하나의 독립적 전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대학교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트랙>에 비해 한층 더 발전되고 독립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전공학점 역시 13개 과목, 39학점에서 2019년도에는 3학점을 추가하여 42학점에 이른다. 2학년 1학기까지 공통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2학년 2학기 때 <불어불문학전공>과 <프랑스문화·지역학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프랑스문화·지역학전공>은 기존의 <불어교수법전공>을 대신한 것이다. 이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불어 교사를 배출하기 어려워 존재 이유가 불분명했던 <불어교수법전공>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전공과정이 프랑스를 포함한 프랑스어권 지역의 문화와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불어불문학과가 안고 있는 위기 탈출의 방편이라는,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한 세상이 요구하는 새로운 지역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두 가지 이유 모두가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 설립의 배경이 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 이러한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한 것이다.

2015년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의 준비와 함께 시작된 이 전공과정의 개설은 사업이 선정된 2016년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이어진다. 2017년 전공과정이 개설되며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으로 신입 교수를 선발함으로써 이 전공과정은 온전하게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

1. 교과과정 운영과 개편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의 경우 프랑스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이 12개에 이를 만큼 다른 대학의 사례들에 비해 월등하게 관련 교과목의 수가 많다. 2016년 최초로 구성된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7학년도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 교과목 구성¹⁷⁾]

학년	학기	교과목명
2학년	2학기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어작문1, 프랑스문학의이해, 프랑스어권지역학의이해 , 프랑스어강독1, 프랑스어문법1, 프랑스어권문화와예술
3학년	1학기	프랑스어문법2, 프랑스어글쓰기연습, 프랑스어회화1, 프랑스어권언어와문화 , 프랑스시, 프랑스어권아프리카의사회와역사 , 프랑스어권유럽·북미의사회와역사
	2학기	프랑스어구문구조, 프랑스어강독2, 프랑스어작문2, 프랑스어권유럽·북미의문화와예술 , 프랑스어교육론, 프랑스어권지역학특강 , 프랑스어권아프리카의문화와예술
4학년	1학기	프랑스어권아프리카의정치와경제 , 프랑스어회화2, 프랑스어교재연구및지도법, 프랑스문학특강, 실무프랑스어, 프랑스어권연구세미나
	2학기	프랑스어특강, 프랑스공연예술, 프랑스어권아프리카개발협력의이해 , 프랑스어권유럽·북미의정치와경제 , 프랑스소설

따라서 관련 교과목의 수만 놓고 보면 프랑스어권 지역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에 가장 근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 교과목들의 내용과 그 운영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의 교과과정은 구성과 운영 두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과목이 매우 기계적인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어권에 대한 기초 과목들인 ‘프랑스어권 지역학의 이해’와 ‘프랑스어권 문화와 예술’ 이후 중급 심화 과정에서는 프랑스어권 지역을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와 유럽·북미로 나누고 사회와 역사, 정치와 경제, 문화와 예술 강의를 각각 배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급하게 구성되었다는

17) 강조는 프랑스어권 지역학 관련 과목들임.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2학년 1학기까지는 통합 교과과정으로 운영된다. 2학년 2학기부터 두 개의 전공(불어불문학 전공,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으로 분할되어 운영되며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에는 한 학년에 10명의 정원이 배정된다. 적은 숫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을 개설하는 까닭에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의 수는 한 학기에 3-4 과목에 불과하며 고학년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적은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과목들에 우선권을 주다보면 한 학기에 개설되는 지역학 관련 과목은 기껏해야 학년별로 한 두 과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2019년부터 이수해야 할 전공 학점을 39학점에서 42학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두 번째로는 부분적인 교과과정 개편을 하게 된다.

[2019학년도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 교과목 구성¹⁸⁾]

학년	학기	교과목명
2학년	2학기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어작문1, 프랑스문학의이해, 프랑스어권지역학의이해 , 프랑스어강독1, 프랑스어문법1, 프랑스어권문화와예술
3학년	1학기	프랑스어문법2, 프랑스어글쓰기연습, 프랑스어회화1, 프랑스어권언어와문화 , 프랑스시, 프랑스어권아프리카의역사 , 프랑스어권유럽·북미의역사
	2학기	프랑스어구문구조, 프랑스어강독2, 프랑스어작문2, 프랑스어권의문학 , 프랑스어교육론, 프랑스어권지역학특강 , 프랑스어권의프랑스어
4학년	1학기	프랑스어권아프리카의사회 , 프랑스어교재연구및지도법, 프랑스어회화2, 프랑스문학특강, 실무프랑스어, 프랑스어권연구세미나 , 빅데이터와프랑스문화
	2학기	프랑스어학특강, 프랑스공연예술, 프랑스어권아프리카개발협력의이해 , 프랑스어권유럽·북미의사회 , 프랑스소설

개편된 교과과정의 경우, ‘사회와 역사’라는 제목의 교과목들은 ‘역사’로, ‘정치와 경제’라는 제목의 교과목들은 ‘사회’로 바뀌었다. 이는 앞선 교과목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너무 많은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덧붙여 <프랑스어권 유럽·북미의 문화와 예술>, <프랑

18) 강조는 프랑스어권 지역학 관련 과목들임.

스어권 아프리카의 문화와 예술>을 각각 <프랑스어권의 문학>, <프랑스어권의 프랑스어>로 개편하게 되는데, 이 역시 지역별로 세분화된 ‘문화와 예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문화나 예술뿐만 아니라 ‘문학’과 지역의 ‘언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프랑스문화>라는 과목을 추가함으로써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대응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게다가 2018년 단 한 명에 그쳤던 지역학 전공 교수도 2019년에 한 명을 더 추가함으로써 교과과정 운영이 더욱 원활해지고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프랑스어 능력을 진작시키는 교과목들과 지역학 전공 교과목들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이다.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신입생의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이다. 비록 2019년도부터 42학점으로 이수 전공학점을 상향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프랑스어 능력과 지역학에 대한 이해 능력을 동시에 갖추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비교과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서 비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이다. 하나는 프랑스어 언어능력을, 다른 하나는 진로 및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1) 언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생들의 프랑스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프랑스어 캠프와 교학상장, 같이배움, 학습꿈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들의 소모임¹⁹⁾이 있다.

19) 교학상장, 같이배움, 학습꿈터 등의 소모임은 학과가 아니라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학과 교수들은 지도교수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프랑스어 캠프는 하계와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는 학과 내규를 통해 프랑스어 캠프 3회 이상 참가를 졸업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3회 이상 캠프에 참가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프랑스어 향상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하계캠프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동계캠프의 경우는 입학 앞둔 예비 신입생들까지 포함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하계캠프에는 평균 4~50명 정도가, 동계캠프에는 6~70명 정도가 참여한다. 하계캠프의 경우는 3명의 원어민 교사가 A2, B1, B2 등급의 세 반을 운영하며 동계캠프는 예비신입생들을 위한 반을 추가하고 이 예비신입생을 위한 반은 한국인 교사가 담당한다.

10년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는 교내에서 방학 기간 중 5일 동안 30시간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캠프의 수업은 프랑스어 자격시험(DELFF)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모의 DELF 시험을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프랑스어 능력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며 프랑스어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²⁰⁾를 보면 캠프에 대한 만족도는 생각만큼 높지 않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성실하게 캠프에 참여했나요?”라는 항목의 평균 점수는 4.09점, 강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4.06점이었던 반면, 캠프에 대한 만족도는 3.62점에 그치고 있다. 학생들에게 캠프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과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학생들의 의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2018년 하계 캠프의 경우 A2반에는 32명, B1반에는 7명, B2반에는 단 2명만이 수강했을 뿐이다. 이렇게 A2반에 학생들이 집중된 것은 학생들이 학과 내규가 졸업 요건으로 정한 3번의 캠프참여와

20) 설문조사는 캠프 참여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2018년 하계 프랑스어 캠프 시간표 중 일부]

요일	시 간	내 용 / 분 반		
		DELFA2반	DELFB1반	DELFB2반
월	9:30~10:45	Compréhension Orale(CO)	Compréhension Orale(CO)	Compréhension Orale(CO)
	11:00~12:15	Compréhension écrite(CE)	Compréhension écrite(CE)	Compréhension écrite(CE)
	12:15~13:45	점심시간		
	13:45~15:00	Production écrite(PE)	Production écrite(PE)	Production écrite(PE)
	15:00~16:30	Production orale(PO)	Production orale(PO)	Production orale(PO)
	17:00~18:00	취업특강 : 연규남(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원 과장)		
화	9:30~10:45	Compréhension Orale(CO)	Compréhension Orale(CO)	Compréhension Orale(CO)
	11:00~12:15	Compréhension écrite(CE)	Compréhension écrite(CE)	Compréhension écrite(CE)
	12:15~13:45	점심시간		
	13:45~15:00	Production écrite(PE)	Production écrite(PE)	Production écrite(PE)
	15:15~16:30	Production orale(PO)	Production orale(PO)	Production orale(PO)

DELFA2 자격증 취득이라는 조건²¹⁾을 채우려고만 할 뿐 프랑스어 실력을 늘려 더 상급 과정으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소규모 동아리 형태의 스터디 그룹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교학상장,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같이배움, 학습꿈터 등의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같이배움이나, 학습꿈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발적 소모임, 즉 학습 스터디 형태인 까닭에 이 모임에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반면 교학상장의 경우는 지도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형태의 모임이라서 학생들의 프랑스어 실력을 관리할 수 있다.

신입생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어를 접하지 못한 채 입학하는 지방 대학의 현실상 프랑스어 캠프나 소규모의 그룹 스터디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21) 2020년 신입생부터 캠프 4회 참여, DELFB1 자격증 취득으로 졸업요건을 강화하기로 함.

[2017년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학상장 현황]

주제	공동체명	참여인원
프랑스 문화로 프랑스어 배우기	앙상블(Ensemble)	11
<쉬운 프랑스어 문장>의 장벽을 뛰어넘자	le premier pas	12
완전 정복	La joie	10
인문기반 융합	Convergence	8
학업 증진 및 문화 체험	Mon ami	6

프랑스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프랑스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프랑스나 프랑스어권으로 진출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졸업생들 중 프랑스어를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프랑스어권에 취업한 사례는 더더욱 적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로 하여금 프랑스어 학습에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 취업 관련 프로그램

취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을 위한 특강과 캠프, 그리고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 취업특강은 일반적으로 프랑스어 캠프 기간을 이용하여 프랑스어권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모범적인 취업 사례에 해당하는 졸업생들을 초대하여 강연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2018년 하계 프랑스어캠프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원 과장의 특강이나 NGO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의 특강이 이에 해당한다.

취업캠프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특성상 수도권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현장 방문이나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로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며 서울에 소재한 기업이나 대사관과 같은 프랑스어권 지역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런 취업특강과 캠프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기는 어렵다. 일 년에 한두 번 치르는 이런 행사는 체계적이기도 힘들고 지속성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2017년 취업캠프 프로그램]

기간	내용	비고
12월 27일(수)	캠프 출발	전남대 박물관 앞
12월 27일(수)	BBuzz Art 견학 및 특강	서울 삼성
12월 28일(목)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견학 및 특강	서울 광화문
	주한케백대표부 견학	
	주한캐나다대사관 견학	
12월 28일(수)	캠프 종료 및 해산	전남대 박물관 앞

정보 접근 환경이 열악한 지방의 상황 때문에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선배들 중 프랑스어 실력을 바탕으로 프랑스 또는 프랑스어권 관련된 분야에 취업한 사례는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공부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한다.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인턴십은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져 행해진다. 국내 인턴의 경우는 전남대학교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단’이 지역의 기관 또는 업체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파견하고 있다.

<2016-2017년 국내 인턴 현황>

- 기간: 2016년 9월 ~2017년 2월
- 과정구분: 학점 인정과정, 학점 비인정과정
- 지원내용: 8주 인턴십(100만원), 4주 인턴십(50만원)
- 섭외기관: 11개 기관
 - 문화기관(아시아문화원, 문화재단)
 - 방송기관(KBS, kbc, MBC, GFN)
 - 공공기관(광산구청, 북구청, 남구청, 시민자유대학)
 - 일반기업(유진약품)
- 참여학생: 49명(중도포기 10명)
- 예산: 9,900만원(학생지원금, 기관지원금, 추진 및 지도)

국내인턴십 프로그램은 인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인턴 협정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향후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장시킨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인적 자원인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언어능력과 업무이해능력, 성실도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인턴십의 경우 국제적 실무 감각과 업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지역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2016년 동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16-2019년 프랑스어권 인턴 현황>

- 기 간: 동계 방학 기간
- 과정구분: 학점 인정과정, 학점 비인정과정
- 지원내용: 8주 인턴십(2016년 400만원, 2017년부터 500만원)
- 섭외기관: 12개 기관

문화기관(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파리), Galerie Pont des Arts(파리), Cine Tapis Rouge(몬트리올), Documentaire sur grand écran(파리), Art(파리))

언론기관(Paris Jisung(파리))

일반기업(SAS ICD(상베리), Midas(몽펠리에), Help Me Candidature(파리), Yes Academia(파리), Cultures et Métiers du Web(파리), AT&T)

- 참여학생: 총26명(2016년 7명, 2017 9명, 2018 4명, 2019년 6명)

해외 인턴십은 학생들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인턴십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²²⁾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프랑스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지인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현지의 기업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국제적 감각과 넓은 시야를 키울 수 있었다’, ‘현지의 근무 환경에 대

22) 2018년과 2019년에 프랑스어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14명을 대상으로 12개의 주관식 항목으로 실시.

해 알 수 있었고 현지에서의 취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등이 인턴 활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 결과이다. 학생들에게 이런 경험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4번에 걸쳐 실시된 이 인턴과정이 실제로 학생들의 프랑수어권 취업에 미친 영향이나 효과는 지금으로서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평가하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에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현지에서의 인턴 활동 중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해외 인턴십을 통해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학생 A : 이번 인턴을 통해서 제가 대학을 마치고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받았다는 것입니다. 4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불문학과 학생들이 해외취업을 한 번쯤 고려해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반을 닦을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입구부터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인턴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는 정규직에 채용된 것이며, 제 미래의 목표를 졸업을 앞둔 다른 학생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인턴 기간 동안 ‘인턴을 수행하면서 유럽기업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현지의 구직에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며 현재 해외 인턴십의 개선점으로는 인턴십 기간의 연장(현재 8주)과 지원금의 증액(현재 500만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해외 인턴십은 또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는 인턴 파견 기관이나 기업 선정의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학과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현지 기관에 직접 요청하고 있다. 국내 인턴의 경우처럼 파견기관과 협정이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턴 학생들을 파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기관을 찾다보니 특정 분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진로분야와 무관한 기관에서 인턴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인턴으로 파견된 기업들은 현재까지 프랑스와 퀘벡으로 한정되어 프랑스어권 지역으로 확장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의 부족이다. 현재 해외 인턴십 파견을 위한 언어 능력의 기준은 B1이다. 그러나 B1 수준의 언어 능력으로 현지 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협업하며 근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학생들의 경우도 본인의 언어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인턴십의 목표를 언어 능력 향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현지 기관이 요구하는 언어 능력이나 조건과는 거리가 멀며 심지어 몇몇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문제 삼아 인턴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경우도 있다.

세 번째로는 현지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나 직무 능력의 부족이다. 실상 이제까지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아니다. 향후 이 전공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인턴십에 참여하게 될 경우 보다 나은 성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2018년으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향후 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 1인당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외부의 재정지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IV. 나가는 말

전남대학교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이후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을 개설하고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두 측면에서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더구나 곧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 끝나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해지면 특히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남대학교의 경우 ‘국립대학육성사업’

의 일환으로 인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기간에 비해 그 지원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어느 정도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의 운영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문화·지역학 전공> 교과과정의 경우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최근 1차 개편을 진행했다. 개편된 교과과정이 지역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얼마만큼이나 효과적인지는 향후 운영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교과과정의 운영은 더욱 현실화되고 체계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비교과프로그램의 경우 프랑스어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 참여 횟수를 4회로 늘리고 졸업을 위한 요건을 B1으로 높인 만큼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프랑스어 실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 의지이다. 이런 자발적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어 실력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어권 지역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사례가 증가하면 학생들의 동기 부여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인턴십의 경우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지속된다 하더라도 예산상의 지원이 줄어들어 프로그램의 규모도 축소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기회나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이 프로그램의 지속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매력을 느낄 해외 기관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하고 충분한 언어, 실무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파견할 경우 해외 취업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프로그램임은 사실이다. 전남대학교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신입 지역학 교수에게 전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선정과 파견, 학생들의 사전 교육 등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단기간에 극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전공에 대한 충실도와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되어 교육과 취업이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더 높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경석, 「지역학과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문교육』 28,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8.
- 김경석, 「프랑스(어) 관련학과의 지역학 교육 표준화 모형」, 『프랑스학연구』 48, 프랑스학회, 2009.
- 김용현·손정훈, 「프랑스어권 교육 과정에 대한 고찰과 전망 -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트랙」, 『프랑스어문 교육』 49,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5.
- 김태훈, 「한국에서의 프랑스어권 연구와 교육 현황」,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 1,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 2018.
- 정남모, 「불어불문학과와 발전방안으로 프랑스어권교육의 도입 가능성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72, 한국불어불문학회, 2007.
- 정남모, 「프랑스어권교육을 통한 프랑스학과의 특성화·다양화·전문화에 대한 소고」, 『한국프랑스학논집』 63, 한국프랑스학회, 2008.
- 정해수, 「국내대학에서의 문화관련강좌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프랑스 문화 및 지역연구 강의를 위한 제언」, 『프랑스학연구』 25, 프랑스학회, 2003.
- 정해수·장연옥, 「국내대학의 프랑스문화·지역연구 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외국대학의 프랑관련학과 강좌 조사 II :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대학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15, 한국 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3.
- 정해수·장연옥, 「국내대학의 프랑스문화·지역연구 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외국대학의 프랑관련학과 강좌 조사 I -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42, 한국프랑스학회, 2003.
- 한양환, 「불어권 지역연구와 불어교육의 활성화」, 『한국프랑스학논집』 29, 한국프랑스학회, 2000.

2. 기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홈페이지 <http://core-portal.org>

전남대학교 코어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jnucore.org>

경북대학교 코어사업단 홈페이지 <http://knucore.knu.ac.kr/>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홈페이지 <http://france.ewha.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홈페이지 http://firgrad.knou.ac.kr/course/course_2.html

<Abstract>

A Study on the curriculum and nonsubject activities of French cultural and regional studies in Chonnam University

Kim, Tae-ho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urriculum and nonsubject activities of French cultural and regional studies in Chonnam University. The French Cultural and Regional Studies program, opened in 2017, is aimed at fostering experts in the France and Francophonie, supported by th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CORE)'. To this end, we have opened 13 French-related subjects. However,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alone is difficult to promote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French and regional studies at the same time. Therefore, we run various nonsubject activities to enhance students' French ability, career and employment skills. In particula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rnship program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employment experiences oversea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program of nonsubject activities will be difficult after th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CORE)'. In order to overcome this difficulty, it is necessary to seek self-help measures based on the univers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improve their French language ability and to continue to provide international internship experience so that students

are more willing to work overseas.

Key words : French Culture and Regional Studies, French Languag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CORE), Regional Studies, International Internship

김태훈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전자우편: remine@jnu.ac.kr

이 논문은 2019년 3월 13일 투고되어 2019년 4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 16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